

2009 캠페인 "Go! Green Logistics" - 3

녹색물류 정책 무게중심 인식전환에 실려야

'이것 아니면 미래가 없다' 절절히 체감하게 할 작업 절실



2009 연중 캠페인
"Go! Green Logistics"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한 보고서가 물류업계를 상당히 우울하게 만들었다. 물류업계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올해 물류산업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불투명한 경기회복 전망, 소비심리 위축, 제조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물류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란 예측이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러한 결과에 대해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내심 경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보고서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물류업계의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이다. 올해 물류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불황' 일 수밖에 없다. 어느 산업이든 예외일 수 없겠다. 설문결과 경인운하와 4대강 정비가 2%대의 클릭률을 보이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미 물류업계와 물류전문가들에게 있어 운하사업이나 4대강 정비사업이 마음 밖의 일임을 의미한다. 자연스러운 설문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 및 합병이 키워드 순위 8위에 랭크돼 있는 것은 의외다. 분명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일 것이다.

녹색물류 키워드와 정책순위 '엇박자'

2위가 재미있다. 녹색물류다. 사느냐 죽느냐의 시장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녹색물류가 물류업계의 두 번째로 민감한 화두에 꼽힌 것에 대해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대한상회의의 보고서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

듯 물류업계에서도 녹색을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본지 2월 1일자 시리즈 1편에서 언급한 바 있다. 물류 수요처인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환경규제가 강한 녹색시대를 향유하기 위해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 물류업계에겐 희소식이라는 분석이었다.

화두의 가치를 좀 폼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난해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정부의 녹색물류 정책의 분위기가 설문조사에 반영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해 8월 15일 새 정부가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의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불기 시작한 녹색바람이 '녹색물류에 뭔가 있다'는 막연한 의미부여 심리를 양산해 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어쨌든 녹색물류는 물류업계의 가장 민감한 키워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설문조사에 가면 내용이 크게 바뀐다. 시급한 정책과제로 '녹색물류 도입 확산'을 꼽은 전문가는 7.9%로 클릭률 5위에 랭크 됐다.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과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효율화, 물류산업 규제개혁, 정보화와 정보기술 표준화가 뒤따랐다.

상황적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불황'을 제외할 경우 이번 대한상회의의 설문조사는 '녹색물류 = 올해 물류업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등식과 '녹색물류 ≠ 정책과제 최우선 순위'라는 부등식이 함께 자리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왜일까?

이는 물류업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녹색물류가 아니라 불황탈출임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업계를 불황으로부터 구해내는 데 있는 것이니 녹색 운운하며 구름 잡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불황에서 벗어나 시장이 정상

화 되더라도 '녹색물류 = 정책과제 최우선 순위'라는 등식이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란 사실이다. '상황이 바뀌어도 녹색보다는 다른 가치에 더 무게를 둘 것이 분명하다.'는 것. 상황이 좋아져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 먹고살 일이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물류시장임을 감안한다면 맞는 얘기다.

이는 지금의 녹색물류 정책의 수준과 방향이 녹색물류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감지하는 하게 해주지 모르지만 통감(痛感)하게 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

인식전환 통해 업계가 필요성 '痛感'해야

업계의 전문가들이나 원로들도 이점을 우려한다. 녹색물류를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이것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앞서야 하지 않느냐는 다급한 심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녹색물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과다배출에 따른 패널티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시장, 특히 국제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 6일 본지가 개최한 원로물류인 초빙 좌담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된 원로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날 한 업계 원로교수는 정부가 여러가지 녹색물류 정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업계를 설득할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성토했다. 그는 녹색물류 체제를 갖추지 못한 물류기업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논거를 제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으로 막대한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국가적 위상에 미칠 악영향과 국가적 비용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적 강제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10월 28일 내놓은 <녹색물류 동향보고서 No. 1>에서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고취를 정책과제로 제언했다. '녹색물류의 성공적 보급 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와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고취이며 이를 위한 홍보강화와 교육지원'이라 것이 골자다.

인식고취에 담긴 의미를 확대해석 한다면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따라 녹색물류를 업계 스스로가 실천해 나간다면 정부의 정책이 아니어도 문제는 풀린다'라는 답이 나온다.

정책방향은 저탄소·녹색 교통물류 실현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녹색물류정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부터 양산된 정부의 녹색물류 정책을 정리했다. 이는 이미 연초에 보도된 내용이다.

국토해양부의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저탄소·

녹색 교통물류 실현'이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운송수단을 활성화시켜 현재 8%, 18%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국내화물 수송분담률을 2012년에는 각각 15%와 2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을 수정·보완하고 금년 12월까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고속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3월에는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존 경부선을 화물수송 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시간대 화물열차 확대운행, 최고 120km/h 고속화차 260량 구입 등 열차 고속화, 화차 장대화(28량→37량)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해운을 친환경물류를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50~100%)하고 금년 12월까지 친환경 연안해운 선박 건조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연안해운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10월까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원 등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Green-Port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항공기와 관련해서도 2009년 중 고효율 엔진·기체구조 등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한 경량항공기를 개발하고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6월까지 제정해 저탄소·녹색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을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금년말까지 개발하고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 확대를 위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전환교통(Modal Shift) 협약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녹색물류전환을 유도하는 데도 힘 쓰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배출탄소 자율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한 CO₂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녹색물류인증제'를 마련하고 LNG화물차, 전기구동 갠트릭크레인 등 친환경 물류장비를 지속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Flexible Enterprise Builder

Delivery Confirmation

CAUTION 13'6" HIGH MAXIMUM FIFTH WHEEL HEIGHT 47"

서울시 성수동구 성수 1가 656-410 흥성 빌딩 3층
TEL : 02)3409-1255 FAX : 02)3409-4215 www.febsnc.com

Visibility for SCM Logistics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FEB Solutions & Consulting** 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기반으로 실적측정, 생산지표 등을 분석, 원하는 관리 요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기업전략 및 성과측정을 가능하게 지원하며, 단기간 구축을 위한 개발 Framework을 제공합니다.



고객사

- LAMBERT 99어센트 삼성그룹 케어애프터
- CRF-CAMP
- 마이스터 한라그룹 (H)마이스터
- MANDO 한라그룹(주)만도

솔루션

- Integration
- Visibility
- Event Management
- Real-Time Dashboard

컨설팅

SCM 기술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SI

컨설팅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엔지니어, 그리고 차세대 웹개발 Framework으로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